

# 제57차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보고

표제 회의가 6.6-7간 파리에서 Fritz Meijndert 의장(네덜란드 외교부)주재로 개최되어 ODA 통계 세분화 작업, 원조확대 계획조사 등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 I. 핵심 요지

- 미국, 일본 등 대부분 회원국들은 각국 예산체 제 및 원조기관의 재조정 등 국내적인 사유로 향후 2-3년간의 ODA 확대 계획(scaling up) 및 지역별 배분계획을 표명하기 어려움을 밝 힌. 그러나 장기적 차원의 ODA 확대 계획 수립 이 원조자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원조 효과성 을 제고하고 수원국 ownership을 강화할 것이 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 우리 정부가 작년에 2007-9년간 총 200만불 출연을 제안했던 “APEC 지원기금(APEC support fund)”이 DAC의 다자간 ODA로 계상

되는 다자간 기관으로 승인됨.

- 개발원조 통계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 해 현재 개발원조 통계 수치로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DAC통계(집계 통계)와 최근 이용도가 높아지는 CRS통계(건별 통계)를 통합한 보고 양식인 “CRS++”을 마련했으며, 2005년도 ODA 실적 보고시부터 이를 적용가능한 회원 국들부터 실시하기로 함.
- 최근 일련의 부채탕감, 공여국내 난민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현행 ODA 지원이 실질적인 빈곤감 축 효과가 없다는 일부 국제 NGO들의 비판에 대해 ODA가 포함하는 범위와 계산방식에 대한 투명성 증진과 ODA에 대한 대NGO 및 국민들 의 인식 제고증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기존에 긴급 원조 및 재건(emergency assistance and reconstruction)이라는 명목 의 지원을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으로 개명하고 긴급원조(emergency response), 재 건 지 원(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재난예방 등의 하부항목으로 코드를 신설 혹은 재분류함.

- 아울러 인도적 지원과 분야별 지원(sector-allocable aid)을 명확히 구분키로 하였으며, 해당 재난에 대한 UN 보고가 6개월 이상 없을 경우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별 지원으로 계상키로 함.

## II. 관찰 및 건의

- 우리 나라가 향후 DAC에 가입할 경우 DAC회원국의 주요 의무사항인 DAC통계 보고이외에 원조사업 건별 통계인 CRS 통계 보고도 해야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계 보고 시스템이 세분화된 DAC 통계 작업 보고 체계에 맞게끔 국내 관련 기관간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회원국 내부에서도 기술 협력(TC) 등 DAC 통계 기준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제한된 통계 자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됨.
- ※ 우리나라는 DAC 비회원국으로 집계 통계인 DAC통계만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 DAC 회원국 가입시 원조 건별 통계인 CRS통계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바 두 통계의 통합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건별통계 보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파리선언 및 MDG 선언 등에 대한 서명국으로서 이에 대한 이행결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및 통계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원조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별/섹터별 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국제 NGO들이 개발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혁신적 ODA 재원조달 및 ODA 확대에 대한 국내 일부 부정적 여론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ODA 인식 제고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 국제적으로 ODA 통계 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우리나라도 향후 DAC 가입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계보고 부문과 원조정책 부문과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바, 작업반 회의 및 관련 워크샵 참석 등을 통해 통계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통계 작업반은 “ODA eligible” 국제기구를 사실상 승인하고 국별 ODA의 최종 DAC 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III. 주요 내용

### 1. 2005년 통계보고 성과 검토

- 2005년도 확정통계의 예정 보고시기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9월말을 전후하여 보고할 것임을 밝혔음.

-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 등은 7월 중 보고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비회원국이지만 관련기관간 협조를 통해 9월 이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 2. 원조건별통계(CRS통계)와 집계통계(DAC통계)의 통합 진행상황 보고(CRS++통합보고양식)

■ 오스트리아는 2004년도 원조실적에 대한 통합보고양식 테스트 결과 건별통계 보고를 통해 집계통계가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보고함. 스웨덴, 핀란드 등은 내부 시스템을 수정 중이며 2006년 실적부터는 통합보고양식 형태로 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함.

## 3. 회원국별 향후 원조확대계획 조사(Scaling-up Survey)

■ 파리선언 이행 등과 관련 회원국들의 2007-8년도 ODA지원 확대 계획 및 지역별 배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15개국이 답변을 보냈으나 이중 9개국만이 지역적 배분을 보고함.

■ 대부분 국가들은 예산체계 및 국내 사정으로 ODA 규모 및 지역별 배분계획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힘. 그러나 향후 원조규모 확대계획에 대한 조사가 원조자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원조효과

성을 제고하고 수원국 오너십을 강화시키는 데에 필수적임을 공감함.

## 4. 공여국내 원조정보 조사결과 검토 및 민간자본(Private Flows)보고

■ 사무국은 2005년 작업반 회의에서 원조관련 정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여국들 내부 시스템의 정보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제안한 바 있음.

- 네덜란드 외부무, EC와 영국 DFID의 리뷰를 통해 원조성과분석양식(result template)을 제안함

※ 동 성과양식은 시트별로 한 국가와 한 공여국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요 MDG 지표, 원조자원개황표, 중기 성과자료, 해당 공여국의 파리선언 지표를 이용한 원조효과성 성과, 그리고 파트너국가의 섹터별 예산 및 양자/다자간 ODA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오스트리아는 파리선언 지표 내의 기술협력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하여 통계 자료간의 비교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고, 현지 사무소에서 해당 지표들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보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우려를 표명함. 벨기에는 이 같은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공여국이 제공한 원조자금을 수원국이 오너십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통계가 필요한 것임을 지적함.

- 의장은 원조성과에 대한 보고를 통계부문에 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원조효과 작업반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측정의 기준선(baseline)을 정립해 나가기로 함.
- 사무국은 ODA 통계는 수원국의 보고가 아닌 공여국의 보고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하고 원조조화를 위해서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책대화 시에 공여국 각기의 다른 방식이 아닌 단일화 된 자료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설명함.
- 민간자본(private flows)관련 벨기에는 부동산과 재투자소득 항목을 삭제하고, 다자간 민간자본 하위 2개 항목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일본은 항삭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독일과 네덜란드는 벨기에의 제안에 찬성하였음. 사무국은 DAC 테이블1의 민간자본 하위 4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서면 결의에 부치기로 함.
- 민간자본 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해외송금 흐름이 논의 된 바 미국은 민간자본 보고 확대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사무국은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민간자본 자료 활용에 대해 제안하기로 함.

## 5. 기술협력(TC)의 세분화

-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5월 16-17일 워크숍을 통해 원조타입에 대한 구분 안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산지원 및 기타현금이전, 인적교류협력(Exchange schemes), 소규모모식공유, 기타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음.

- 이는 6.14 GOVNET과 6.28 DAC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사무국은 3/4분기 중 원조타입 구분 안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기로 함. 단, 9월 이전에 기술협력 세분화 사업에 대한 공여국의 예산지원 확정이 있어야 함.

-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제안된 구분 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일본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함을 언급함. 독일은 항목의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2005년도 통계 보고시에 기술협력 세분화 워크숍의 결과를 참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술협력 세분화의 우선적 목적은 원조 실적의 분석에 있음을 설명함.

## 6. 공여국내 난민지원 보고

- 회원국들은 네덜란드의 제안대로 공여국내 난민지원 목적코드를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기타부문 하위로 옮기는 것에 찬성함.
- 또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난민의 자발적인 재정착비용 만을 ODA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함. 나아가, 의장은 통계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DAC에 서면 제안하기로 함.

## 7. 부채탕감 보고

■ 나이지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 확정으로 인해 일부 공여국들의 2005년 ODA 지원 실적이 크게 증대된 것과 관련, 네덜란드는 NGO측으로부터 부채탕감, 공여국내 난민 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현행 ODA 통계가 실질적인 빈곤감축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을 보고함.

■ 이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들도 ODA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ODA통계의 일관성, 지속성, 투명성 유지를 강조함.

- EC는 NGO측 비판의 본질은 투명성 제고에 있지 않으므로 정치적인 접근이 더 적절할 것임을 언급함.

■ 의장은 DAC에 기술적이고 통계적인 차원에서 부채탕감 보고의 한계점과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대되는 DAC의 역할을 전달하기로 함.

## 8. ODA 적격 국제기구 리스트 (DAC 지침 Annex2) 업데이트

■ ODA 적격 국제기구가 아래와 같이 추가됨.

- IMF 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APEC-ASF)  
(대테러리즘 제외)

-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GICHD)

- European Parliamentarians for Africa(AWEPA)

-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 War-Torn Societies International(WSP International)

■ 사무국은 앞으로 국제기구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 추가 안을 2개국 이상만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음.

## 9. DAC 통계작성지침 업데이트

■ 동건관련 프랑스만 국제기구리스트인 Annex2에 대한 변경사항 승인을 작업반이 아닌 DAC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한 조정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확정안 반영 후 9월 DAC 회의에서 승인을 요청키로 함.

## 10. 예산지원 및 섹터지원(섹터프로그램) 보고

■ 사무국은 예산지원 및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지침 상의 정의를 회원국 각국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섹터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는지 조사함.

■ 회원국들은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와 해석으로 인해 통계보고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 공감하였고 덴마크는 관심있는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작업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덴마크, 오스트리아, EC,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6월 말 이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원조목적 코드 상에 인도적지원 700코드를 신설하고 그 하위에 720 긴급원조(Emergency Response), 730 재건지원(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740 재난방지 및 예방(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으로 그룹화하고 그 하위에 세부 목적 코드를 재분류 혹은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함.

## 11. 분쟁, 평화, 치안 섹터 보고 경험 리뷰

- 사무국은 ODA 계상 분야로 신설되었던 분쟁, 평화 및 치안 부분에 대한 보고 실적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1,400백만불에 이르렀음을 보고하고, 지침에서 제시한 분류기준 설명을 참조하여 과거 보고 중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 네덜란드는 CPDC와 협력하여 사례모음집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관련 사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13. 성평등지표(Gender equality marker) 업데이트

- 성평등 관련 원조 실적의 명확한 집계를 위해서 정책지표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온 성평등지표(Gender marker)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부문 원조 하단에 위치했던 여성개발목적코드(42010)를 여성평등조직 및 제도(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15151)로 수정하여 정부 및 시민사회부분 하위로 재분류하기로 함.

## 12. 인도적지원 정의 및 원조목적코드 개정

- 인도적 원조의 정확한 통계생성을 위해 UN OCHA,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DAC 등의 기존 논의를 종합한 정의를 마련하고 일반 분야별 지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함.

## 14. 복수 목적코드 사용 회원국 경험 발표

- 영국과 캐나다는 원조사업의 하나의 목적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다 부문에 걸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정확한 섹터지원 현황의 분석을 위해 복수 목적 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기 활용 경험에 대해 발표함.

- 복수의 목적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원조자  
금의 사용현황을 통계에 보다 정확하게 반  
영하고 다부문에 걸친 cross-cutting 성격  
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반면, DAC집계통계를 통해  
발간되는 자료들과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  
에 항상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고 통계 입력  
담당자들의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  
이 있음.

- 일부 우려도 제기 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바, 적용 방안에 대해 사무국  
은 더 발전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함.

## 15. CRS 통계작성지침 업데이트

- 회원국들은 인도적지원 및 젠더 지표 등의 수  
정사항 등을 반영한 CRS(건별통계) 작성지침  
에 대한 개정에 동의하였음. 사무국은 7월까  
지 회원국들의 서면승인절차를 밟아 9월  
DAC회의에 회부할 예정임.

## 16. HIV/AIDS 관련 보고

- 호주는 에이즈 관련 원조를 예방(Prevention)  
과 치료(Treatment)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하  
였음. 아일랜드는 지지입장을, 스위스는 새  
로운 코드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  
였으며 프랑스 및 기타 회원국은 검토에 시  
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류 입장을 밝힌바,

사무국은 각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17. BSS(기초사회서비스)보고 및 보고서 초안

- DAC은 UNICEF와 합동으로 기초사회서비스  
부문 원조성과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사무  
국은 기 배부한 국별 기초사회서비스 부문 실  
적 확인 요청과 관련 회신하지 않은 회원국들  
에 대해 6월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함.

## 18. OECD.STAD 시연

- 과거 통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OECD.  
STAD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

## 19. 2007-8년 DAC 통계작성반 사업계획 및 예산

-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사무국 사업예  
산 지원계획 발표
- 사무국은 9월 DAC회의에서 각국이 2007~8  
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을 표명할 수  
있도록 기관 내에서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정  
책연관성 및 통계 보고의 시의성의 향상에 대  
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 제공  
을 바탕으로 Task Force, 회원국 방문, 워크샵  
및 회의 등의 활용 계획을 제시하기로 함.

## IV. 참고 사항

- ODA 차관의 양허성(Concessionality)에 대한 논란이 최근 제기되어 온 것과 관련, 사무국은 고정할인율 10% 수준에서 양허성비율 2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에도 양허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관련 회원국에 요청함.
  - 사무국은 2006년 SLM(중간관리자회의)전까지 ODA 차관의 양허성에 대한 정의의 개선을 위해 차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회원

국들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할인율과 양허성 비율 문제를 검토기로 함.

- 내년도 작업반회의는 6.11-12간 개최기로 하고, 통계통합작업(CRS++)관련 워크숍을 12월중 실시하기로 함.
- 네덜란드의 Fritz Meijndert 의장은 금년 8월 방글라데시 대사 부임으로 금번 회의에서 마지막 의장직을 수행했고, 회의 개최 첫날(6.6) 주 OECD 네덜란드 대사 주최로 환송회가 개최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